

“~일 지라도!”

정 귀 철

미원 성바로로 성당 주임신부



요즈음 들려오는 뉴스는 온통 경제가 어렵다는 것과, 과거 권력자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알리는 가슴아픈 소식들로 가득 차 있다. 또한 얼마 전(4월 10일자) 뉴스에 작년 한 해 동안 자살한 20,

30대 젊은 이들의 숫자는 1,435명이라고 경찰청 통계는 밝히고 있고 또 계속 증가 추세라고 말하고 있다. 또 국가의 핵심성장동력인 20,30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인 것으로 확인됐다. 2007년 20대 사망자의 38.6%, 30대 25.8%가 자살의 꿈을 해몽해 주었다가 파라오의 꿈을 해몽해 주게 되고 그래서 자유인이 되었고 이어 바로 이집트 제 2인자가 되었다. 그 때가 그의 나이 서른이었다. 열일곱에 시작된 고통스런 삶이 13년 동안 계속된 것이다. 이집트 제 2인자가 된 지 7년이 지나 온 세상에 가뭄이 들었을 때 요셉은 식량을 구하러 이집트에 온 형제들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형제들과 화해하고 아버지 야곱과도 상봉하게 된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으면 요셉이 비록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지만 그가 겪은 고난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라는 큰 틀 안에서 이루어졌기에 그리 불행하다고만 볼 수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결과로 보면 맞을지 모르지만 과정을 보면 그렇지 않다.

요셉의 생애를 읽을 때 흔히 간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요셉 앞에 가시적으로 나타난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꿈에 하

님도 보고, 목소리도 듣고, 씨름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요셉은 전혀 그런 체험이 없다. 아버지 야곱은 인생의 전환점이나 위기의 순간에 늘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했지만 요셉은 낯선 타지에서 노예살이 할 때도, 강간미수혐의로 내일의 운명을 알 수 없는 죄수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계시는 전혀 없었다.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열일곱에 꾸었던 두 번의 꿈과 그 꿈을 보여주신 야훼 하나님의 돌보심을 절대적으로 믿었고 자신의 힘든 인생을 비참하게만 보지 않았다.

우리라면 어땠을까? 우리도 요셉처럼 신비로운 꿈을 마음에 품고 언젠가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열심히 살았는데도 꿈은 이루어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인생은 자꾸 꼬여만 간다면 그래도 여전히 꿈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성실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도 요셉처럼 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우리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한 채 삶의 풍파 속에서 생존을 위해 허덕이며 살아간다. 요셉이 자신의 위대한 꿈이 어떤 식으로 실현될지 전혀 몰랐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완성될지 전혀 모른다. 다만 분명한 것이 있다면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비참한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을 믿으면서 어떤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의 꿈을 완성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조각하기 전의 다듬어지지 않은 돌과 비교할 수 있다. 우리는 이 돌에 하나님을 새겨 넣

을 수도, 악마의 모습을 새겨 넣을 수도 있다. 결과는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 있다. 하느님은 이렇듯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신다. 하느님은 인간을 꼭두각시로 만들지 않으셨다. 그러기에 하느님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관련해서는 상관하지 않으신다. 인간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책임지는 행위를 하도록 내버려두신다. 하느님은 어느 정도로 인간의 자유를 허락하시는가? 당신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사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허락하신다.

마찬가지로 하느님이 요셉을 당신의 도구로 택했지만 그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완전히 요셉에게 달려 있었다. 하느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요셉이 그 사랑에 맞게 응답할지는 하느님도 모르신다. 하느님은 단지 요셉이 당신 사랑에 충실하게 응답하기만을 바라실 뿐이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하느님은 요셉이 극한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당신 뜻에 따른 바른 선택을 할 때마다 기뻐하셨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삶을 그 아버지 야곱의 삶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성경을 읽어 보면 야곱의 삶이 요셉의 삶 보다 힘들고 투쟁적인 삶으로 보인다.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그러나 야곱이 아무리 힘든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요셉 만큼 힘겹게 산 것은 아니다. 비록 야곱이 유랑생활은 했지만 요셉처럼 노예로 팔리지는 않았다. 비록 야곱이 14년 동안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이용당했지만 자유인의 신분이었고 옆에는 사랑하는 연인 라헬이 있었다. 반면 요셉은 종의 신분인데다가 즐기차게 괴롭히는 주인마님이 있었다. 나아가 요셉은 언제 죽을지 모른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혀 있어야 했다.

그리고 보면 야곱은 요셉보다 더 힘든 삶을 산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야곱이 더 힘들게 살았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왜일까?

그 이유는 야곱의 집념과 요셉의 순종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이다. 야곱은 집념이 컸던 만큼 하느님께 행복하기가 어려웠다. 야곱은 하느님의 섭리에 의탁

하기보다는 자기 힘으로 축복을 움켜쥐려고 애쓰는 인생의 대부분을 보냈다. 매사 자기편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의 삶은 늘 계획과 계략과 투쟁으로 채워졌다.

한편 요셉은 아버지 야곱보다 더 많은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았지만 아버지처럼 축복을 움켜쥐려 애쓰지 않았다. 어떠한 처지에서든 하느님의 섭리에 자신을 맡겼다. 그는 이 세상의 악과 불의 앞에서도 하느님의 축복을 제한시키지는 않았다. 우리나라면 지쳐서 포기했을 13년이란 노예와 감옥살이의 긴 역경의 세월 속에서도 그는 하느님의 돌보심을 의심하지 않았다. 어떤 곤란과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하느님이 당신 선의로 이끌어 주시리라고 굳게 믿었다. 바로 이런 태도 때문에 그의 삶은 고통보다는 축복이 부각되는 것이다. 요셉은 오직 하느님만을 바라보고 살았다. 그는 이야기를 할 때에도, 행위를 할 때에도 반드시 ‘하느님’ 중심이었다.

만약 요셉이 이집트 대제국의 재상이 되지 않고 삶을 마쳤다면 어땠을까? 성추행자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다음 다시 세상에 나오지 못했다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분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아무 보상도, 명예도 회복하지 못한 채 힘겹게 살다가 죽는 일도 허다한데 만일 요셉도 그랬다면? 그래도 요셉은 하느님께 순종했을까? 물론이다. 요셉이 감옥에서 죽었다 하더라도 이야기의 주요 골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요셉의 근본 속제는 그가 세상에서 얼마나 출세하느냐, 혹은 처지가 얼마나 힘겹고 고통스러우냐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어떠한 환경에서든 그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신뢰하면서 얼마나 의연하게 극복하였느냐였기 때문에 그가 이집트 재상이 되고 안 되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하느님께 대한 요셉의 신앙은 한마디로 ‘~일지라도’의 신앙이라 할 수 있다. 신앙이나 삶의 태도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이라면’의 태도이고, 다른

하나는 ‘~일지라도’의 태도이다. ‘~이라면’의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모든 일이 잘 풀린다면, 내 인생이 번성한다면, 내가 행복하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겪지 않는다면, 그들이 죽지 않는다면, 내가 성공한다면 그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봉헌금도 많이 내겠다.’ 한편 ‘~일지라도’라는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억울한 일인 내게 닥칠지라도, 나의 원수가 변창할지라도, 내가 모함 당하고 손해보고 고난과 죽임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미할 것이다.’

요셉의 이야기는 극적이다. 그것은 그가 파란만장한 인생유전을 겪고 끝내 승리자로 우뚝 섰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우리도 요셉처럼 되어야 한다. 적어도 요셉의 삶의 태도를 배워야 한다. 그러면 젊은이들이 자살이라는 잘못된 극단의 태도를 취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든, 어떤 상처를 받든, 어떤 긴장 속에 살든 희망을 저버려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과 함께 꾸준히 나아가는 삶, 묵묵히 걸어가는 삶이 승리를 가져다준다.

